

Advertisement

문화 문화일반

뉴진스에 들썩인 도쿄돔...일본 속 'K팝' 더 젊어지고 세졌다

기자 서정민

수정 2024-06-30 19:3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5:55 ▶ 🔊



27일 일본 도쿄 시부야 타워레코드 5층 케이(K)팝 코너가 뉴진스 앨범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정민 기자

지난 27일 저녁, 커다란 달걀처럼 생겨 '빅에그'라고 불리는 일본 도쿄돔이 들썩였다. 최정상 인기 스타만 설 수 있다는 '꿈의 무대'에 오른 주인공은 그룹 뉴진스. 이들은 26~27일 이곳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공연을 펼쳤다. 일찌감치 매진돼 시야제한석까지 연 끝에 이틀간 9만1200여명이 들었다. 데뷔한 지 2년도 안 된 신인 그룹이, 일본 데뷔 닷새 만에 이런 놀라운 성과다. 뉴진스는 일본 이외의 아티스트 중 데뷔 이후 최단 기간인 1년11개월 만에 도쿄돔에 입성하는 기록을 썼다.

어떤
하기
들이[사설]
통령, 참

뉴스룸 P

숨진 41살
샘 주63박지성 "이
구 더 잘했
정 논란 속막말 의사
록..."미
상 표현의



그룹 뉴진스가 지난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딸 영자

아리설

“아라

뉴진스는 오랜만에 5인조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발등 부상으로 빠졌던 막내 혜인이 합류했다. 2022년 데뷔곡 '어텐션'으로 시작한 무대는 2시간30분간 22곡을 쏟아내는 정식 공연과 다를 바 없었다. 관객은 대부분 젊은층이었고, 남성이 60~70%는 돼 보였다. 관객들은 도쿄돔이 떠나갈 듯 큰 함성을 지르며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었다. 거의 모든 곡의 '떼창'을 이끌어낸 뉴진스는 이미 슈퍼스타였다.



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뉴진스 팬미팅 '버니즈 캠프'를 찾은 팬들이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서정민 기자

나는 일본 가수 마쓰다 세이코의 1980년 히트곡 '푸른 산호초'를 불러 이날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본 국민 아이돌의 추억 어린 노래는, '디토'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녀노소 모두 아련한 향수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일본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가 한국에서 온 케이(K)팝 신성과 접속하는 순간이었다.

Advertisement

이날 공연을 본 쿠와하타 유카 한국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자는 “최첨단 케이팝이면서도 2000년 즈음 제이(J)팝의 정겨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일본에 ‘뉴진스 아저씨’라 불리는 중년 남성 팬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0~20대 남녀 관객이 대다수였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27일 일본 도쿄 시부야 타워레코드 5층 케이(K)팝 코너에서 뉴진스 앨범을 든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 서있다. 서정민 기자

지금 일본에서 뉴진스의 인기는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이다. 이날 공연 전 찾은 도쿄 시부야 타워레코드 음반점 5층은 유난히 더 붐볐다. 한층 전체가 케이팝 코너인데, 직원들은 매대에 뉴진스 앨범을 채워넣느라 분주했다. 젊은 손님들은 수시로 앨범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줄을 섰다. 뉴진스 앨범 5장을 구매한 한 18살 남성은 “6개월 전부터 케이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일본 방송에 나온 뉴진스를 보고 노래와 춤이 좋아서 단숨에 팬이 됐다”고 말했다.

인근 뉴진스 팝업스토어가 마련된 '라인프렌즈 스퀘어 시부야'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전 예약만 받는 지하 1층 매장은 7월15일 종료일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됐고, 현장 방문 예약으로 운영하는 1·2층 매장은 매일 아침 10시 이전에 번호표가 마감된다고 한다. 번호표를 받은 이들이 시간대별 입장을 위해 줄 서서 대기 중이었다. 매장에는 일본 팝아트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 후지와라 히로시와 협업한 각종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다. 오사카에서 온 리사(27)는 “작년에 유튜브로 접하고 팬이 됐다. 케이팝 그룹들이 대체로 비슷비슷한데, 뉴진스는 레트로 감성의 다른 색깔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라인프렌즈 스퀘어 시부야'에 마련된 뉴진스 팝업스토어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다. 아이피엑스(IPX) 제공

뉴진스가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을 발매한 건 지난 21일이다. 일본 방송에 출연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이전에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은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이다. 김성한 평론가는 “케이팝 그룹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일본어 음반을 내고 현지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인지도와 팬층을 넓혀 인기를 얻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뉴진스는 일본 활동 시작 전에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일본 시장에선 케이팝을 넘어 글로벌 팝스타로 먼저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Advertisement

를 운영하는 스페이스오디티의 김흥기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조회수로 보면,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1위 케이팝 소비국이다. 과거엔 일본 팬덤이 동방신기 등 몇몇 그룹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3세대 그룹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뉴진스 등 4세대 그룹들이 대거 인기를 끌면서 젊은층이 케이팝 장르 자체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27일 뉴진스 팬미팅 '버니즈 캠프'가 열리는 도쿄돔 인근 편의점에서 뉴진스를 1면에 크게 보도한 일본 스포츠신문을 한 팬이 구입하고 있다. 서정민 기자

쿠와하타 기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도시인들이 케이팝을 좋아했다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평소 콘서트에 가기 힘든 지역의 젊은이들도 디지털 미디어, 비대면 콘서트 등으로 케이팝을 접하면서 좋아하게 됐다. 이제는 지역 고등학교 축제에서도 케이팝 댄스가 인기일 정도로 팬층이 젊어지고 지역적으로 넓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에스엔에스를 통해 좋아하는 것을 확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갈수록 더 퍼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관련기사



2024-06-23



뉴진스, 일본어 곡으로 한·일 음반 차트서 동시 1위 진기록
2024-06-23



게임 속 뉴진스 캐릭터로 '부적절한 게시물'...하이브·크래프톤 단속 나서
2024-06-21



"5번 사면 뉴진스 나온다며"...크래프톤 '뽐기 한정템' 안내 오류 못 매
2024-06-13



뉴진스 '하우 스위트' 빌보드 글로벌 7위...통산 5번째 톱10
2024-06-04

서정민 기자

구독

음악과 영화 맛집을 사랑하는 기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얻은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뉴진스에 들썩인 도쿄돔...일본 속 'K팝' 더 젊어지고 세졌다
하니의 '푸른 산호초'...40대 추억과 MZ 뉴트로의 '완벽 동기화'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소개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 | |
|-----|-----|-----|-------|------|
| 좋아요 | 슬퍼요 | 화나요 | 감동했어요 | 응원해요 |
| 0 | 0 | 0 | 0 | 0 |

전체 댓글 보기

Advertisement

오늘의 주요기사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접속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오피니언

1 [단독] 검찰, 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공범 조사



2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72만 넘어...접속 폭주에 대기 2시간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접속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강제적인 주사가 없습니다.

3 [단독] 미국 미술관이 내건 이중섭·박수근 그림 4점 다 가짜였다

4 부산이 사라진다고?...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

5 '터지면 열폭주' 리튬전지, 미국은 연기 날 때부터 감지한다

6 딸 영정도 없는 분향소에서 "폭발 위험도 모르고 일하다니..."

7 '9년 솔로' 수컷 뱀 호날두, 새끼 낳았다는데...

8 숨진 41살 쿠팡 기사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밤샘 주63시간 노동

9 '윤석열 탄핵안' 국민청원 동시접속 1만명 이상...63만명 동의

10 [단독] "쿠팡, 배송기사 명절수당 100만원 떼먹어"...단가 3배라더니

[회사소개](#) [신문구독](#) [광고안내](#) [채용](#)

[고충처리](#) [고객센터](#) [저작권](#) [회원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적재산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한겨레 가족](#)

한겨레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